

1991년 8월 27일 제121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 일시: 1991년 8월 27일(화) 오전 10시 개회

○ 발언자:

- 시미즈 스미코(清水澄子) 의원(정치가, 일본사회당·호헌공동 소속 참의원 의원, 사회당 여성·시민국장, 사회민주당 부당수)
- 와카바야시 유키노리(若林之矩) 정부위원(노동성 직업안정국장)
-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국무대신(중의원 의원, 자유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 문부대신, 자유민주당 총재, 내각 총리대신 및 대장대신, 신진당 당수)

○ URL: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12115261X00319910827&spkNum=103¤t=21>

○ 해제(개요 및 특징)

시미즈 의원은 한국의 정대협 회장이 방청하고 있다는 말로 상황의 심각성을 환기하면서 종군위안부에 대한 국가적 관여를 집요하게 추궁하고 일본정부의 오만함을 규탄함. 정부위원과 총리대신 모두 한일 우호 관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을 계속하면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 입장대로 자료 부족에 따른 실정 파악의 미비를 핑계로 국가 차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 확답을 회피하고 있음.

○ 주요 내용 번역

- ▷ 시미즈 “오늘은 한국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挺身隊問題対策協議會) 회장도 여기 와서 방청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작년 6월 본 예산위원회에서의 정부 답변이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35만 명에 달하는 한국 여성들의 분노 속에 조직된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데,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지금도 **종군위안부** 문제에 국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 ▷ 와카바야시 정부위원 “방금 질문은 통상국회(通常國會)¹⁾에서 제가 드린 답변과 관계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성 본성(本省)에서 여러 조사를 했습니다만, 자료 등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근로국 혹은 근로동원서에서 근무

1) 통상국회(通常國會) : 일본에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국회. 회기는 150일간. 한국의 정기국회와 같은 개념.

했던 사람에게서도 여러 가지로 들어봤습니다만, 그분들의 이야기대로라면 **중군 위안부**라는 문제에 이들 기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로서도 전혀 이런 상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서, 정부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 **시미즈** “참으로 논변이라기보다도, 일본정부가 이 정도로 오만하고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에 지금 정말로 저도 진심으로 분노를 느낍니다.

말씀드리자면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해 **정신대(挺身隊)**라는 이름으로 징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만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회, 예전의 체제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로 성의가 있다면 조사할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수많은 편지가 와있습니다. ‘자신은 전 군인으로서 이렇게 했다’, 정말 많은 자료를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가 이런 답변을 하는 것에 우리도 책임을 느낀다.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존하는 일본의 많은 실행자 분들의 자료까지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로 자료를 수집할 생각이 있다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전 **위안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답변을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실명으로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을에 법정에 나와 일본의 만행을 증언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한국의 여성단체도 이 문제를 한국 국회에서 다루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여, 가을 국회의 의제가 될 거라 들었습니다.

총리, 일본정부 측 여러분의 발언으로 인해 일한 간의 민간 우호조차 무너지가는 것, 이는 큰 정치문제이자 외교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총리는 이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답변해주십시오.”

- ▷ **가이후 국무대신** “일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두 번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역사의 반성 위에 서 있다는 인식을 피력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의 일한 관계를 구축해야 함을 노태우 대통령과도 확인했고, 또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 지도자들과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중략)

또 회의 초반에 질문하신 조선인 **중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관계 성청에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린 바와 같고, 전혀 상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므로, 저도 그런 보고를 받고 앞으로도 여러 면에서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정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조사를 소급해서 해왔다는 점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